

## 大學의 權威, 누가 지키나

金 彥 子  
(江原大 佛語佛文學科)

요즈음은 일간신문을 보기가 두렵다. 매일 아침 새로운 호기심으로 달려가 집어 오곤 하던 조간신문이 이제는 아침 식탁에 펼쳐지지 않은 채로 남기 일쑤이다. 자칫 오늘 하루가 영망이 되어 버리거나 앓을까 하는 우려에 저녁에 보아도 늦지 않으리라 自慰하며 출근해 버리는 까닭이다. ‘차라리 눈도 없고 또 귀도 없어 전원으로 돌아가 이 평생을 마쳤으면(不如無目兼無耳 歸臥林泉畢此生)’ 하고 읊은 孤山 尹善道의 심정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금년 들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만 들더라도 대학 입시 부정, 수서 비리, 폐놀 오염 사건에 近者에는 師弟 간의 주먹다짐까지 일어났다.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치닫게 하였는지,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는 의문에 사로잡힐 때면 나 자신 大學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현 사태와 결코 無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절감한다.

소위 사회의 최고 知性人을 배출해 내는 대학에서 敎育을 어떻게 했길래 지도자급이라는 인사들이 하나같이 私利私慾을 채우기에만 급급하여 社會倫理나 道義的 責任따위는 내팽개쳐도 좋다고 여긴단 말인가? 이것을 그저 사회에 만연

된 物質萬能主義 탓이라고만 하겠는가?

그러나 조금만 살펴 보면, 겉으로 드러난 拜金主義 밑에는 人間輕視 풍조가 깔려 있고 그것은 또한 힘의 논리와 맞물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을 대하는 정치가나 행정가, 근로자를 대하는 기업주로부터 연약한 아녀자를 폭행하고 무방비 상태의 어린 아이를 유괴하고 살해하는 癡漢犯에 이르기까지, 하다못해 民主政權을 부르짖는 학생들의 示威樣相까지도 그 줄기는 같다. 어떤 종류의 힘이긴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일반화되어 버린 반면 부당한 힘의 행사를 규제하는 방법은 극히 미약하다. 인간이 이처럼 완전히 타인의 수단으로 轉落하고 만 이즈음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가르침을 새삼 되뇌어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大學敎育이 담당할 수 있는 몫은 과연 무엇일까? 급변하는 技術變化와 專門化의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專門人의 양성도 물론 중요하나, 그에 못지 않게 아니 그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대학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듯싶다. 그것은 人間이 인간을 [人間으로 보는 태

도를 길러주는 일이다. 타인을 대할 때 그가 소유하고 있는 物的 價値를 떠나 인간 자체로 대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결국 그러한 대접밖에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 사회가 인간을 평가할 때에 얼마나 외적인 가치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는 바로 신체 장애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人間像은 '人間다운 인간'이라기보다는 '成功한 인간'이다. 성공한 인간이란 바로 有·無形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즉 權力이나 金力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의 인심 또한 권력에 약한 속성을 지닌 탓에 누가 일단 '출세'라는 것을 하고 보면 그가 어떤 절차를 통해 그 위치에 올랐는지, 어떤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지는 論外의 것이 되어 버리고 그가 오로지 權座에 있다는 현재의 사실만이 중요해진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그 은덕을 입어보고자 몰려드는 떼거리들로 그는 삼시간에 둘러 싸이게 된다. 반면 권력의 주변에 들지 못하는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 사이에는 권력에 대한 冷笑主義가 팽배하고 그럴수록 반작용으로 권력층의 權威主義는 더욱 氣勝을 부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규정하기를 '되는 일이 없는 사회, 그렇다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사회'라고 하지 않는가? 제대로 절차에 따라 하자면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으나, 연줄만 닿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당면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힘으로 밀어 붙이기와 그에 따른 극도의 不信主義의 악순환적 대립이다. 정치계로부터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保守權威主義와 革新勢力의 극단적 대립이 모두 한 테두리에 드는 현상일 것이다.

人間改造나 社會改革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는

물론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일 수밖에 없다. 즉, 不信과 敗北主義가 만연된 이 사회에 믿음을 심어 주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人間像을 제시하는 일이다. 성취우선주의자가 아닌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本分을 지킬 줄 알고 자기 職分에 충실한 인간 말이다. 그러나 백번 經을 외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에게 그런 模範이 없고 그렇게 실천하는 자가 없다면, 올바른 교육의 진정한 어려움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 停年退任을 하신 교수님을 뵈었더니 하시는 첫 말씀이 요즘처럼 고달픈 교수 생활을 하느니 그만 둘 수 있어 아주 좋으시다는 것이었다. 일전에 일어난 師弟之間의 주먹질을 두고 하시는 말씀같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막상 주먹 사태보다도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 교수와 학생들이 수수방관하였다는 점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태 앞에서 교수와 학생이 구경꾼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도대체 누구의 문제라는 말인가?

敬權守護니 대학의 權威니 임으로 외쳐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하물며 자신의 문제에 당사자들 스스로가 傍觀者이고서야 누가 그 일을 해결해 주겠는가? 학생들은 학교를 등록금 내고 졸업증명서나 받아 내는 학원 정도로 여기고, 교수는 노동의 댓가로 월급을 받는 봉급자로나 자신을 여긴다면 이미 스승과 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승과 제자가 존재하지 않는 大學에 대학의 權威란 語不成說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정말 師弟關係를 서로 포기해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슬며시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교수는 교수대로 無事安逸主義에 빠져 몸 보신할 생각만 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교수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극도의 個人主義와 천박한 民主主義나 무조건적 平等主義에 묻혀 師弟之間의 아름다운 傳統은 영영 사라지고 만 것은 아닌지?

교수와 학생이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를 대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서로의 위치와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교수없이 학생이 있을 수 없으며 학생없는 교수 또한 存在理由가 없는, 즉 들은 떨어질 수 없는 共同運命體를 이룬다. 따라서 교수의 權威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학 자체의 권위가 失墜하는 것이며, 그 여파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는 온갖 기존 가치를 뒤 흔들게 된다.

학교에서는 교수의 권위가,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사회에서는 웃어른의 권위가 서지 않아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紀綱이 잡힐 수 없다면 그 결과는 누가 감수하게 되는가?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기존 價值體系를 수정할 필요가 생기고 또 마땅히 개선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나 지붕에 물이 샌다고 하여 집의 주춧돌을 흔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우리 모두 각자가 이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은 단순히 知識의 傳授場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이 서로 믿고 矜持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이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는 교수다워야 할 것이며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막상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눈 앞에 전개될 때는 무엇이 교수답고 무엇이 학생다운지 별로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런 불편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란다거나 할까? 마치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선생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에써 눈길을 감추는 교실 안의 학생처럼 우리 교정의 학생들을 피하고 싶어 했던 그런 경험은 없었던가? 사실 교수와 학생은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다. 우

리는 흔히 요즈음은 스승도 제자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자조적인 그 말 속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학생이 그 모양이니 어떻게 교수 노릇을 제대로 하겠느냐, 교수다운 교수가 없으니 어찌 교수 대접을 할 수 있겠느냐는 식이다.

자신은 진정 교수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교수 노릇을 하고 있는지 엄숙히 自問해 보아야 한다. 진심으로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민거리를 알아 보고자 했는지? 행여 중도에서 포기하고 그저 안이하게 최소한의 책임만 지려고 하지 않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을 부끄럼없이 수행할 때에 비로소 看板爲主나 質績爲主의 전도된 가치관으로 혼란한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제자리 찾는 일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根本이 바르지 않고서 무엇인들 제대로 되기를 바라겠는가?

밤 하늘의 별은 어두울수록 밝게 빛난다. 우리의 現實이 어둡게 느껴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의 작은 별이 소중한 것이다. 밝은 대낮에는 그 存在價值가 드러나지 않지만,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작은 별들이 하나 둘 자기 자리를 지키며 빛을 발할 때 우리 사회는 차츰 밝아질 것이다.

교육이란 학기에 따라 황금을 쓸모없는 돌맹이로 만들 수 있는가 하면, 보잘 것없는 차들을 빛나는 보석으로 닦아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千篇一律의 劃一主義的 교육 아래에서는 결단 번지르한 가짜 보석이 나올 뿐이다.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既存의 틀을 이루는 定型化된 世界觀을 깨고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자유로운 思考를 가져야 한다. 根本을 찾되 경직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되 根本을 그르치지 않는 조화로운 교육을 꿈꾼다면 지나친 期待일까? \*